

發行人 洪福模 編輯部 洪福模 印刷部 洪福模 發行所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電 8577

每週火曜日發行

好行福者, 從此到彼, 自受福祚, 如親來喜. 이 세상에서 좋거이 복을 짓고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마름을 밟는 자는 복(福)의 마름을 밟는다. <法句經>

젊은 霸氣의 祭典 幕내려

지난 8日 장충체육관서 決勝



「표고 송강기 정장 전국고교 농구대회가 8日 장충체육관에서 결승전을 가진 결과 명지고교와 신광여고가 남녀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제8회 總長旗 體育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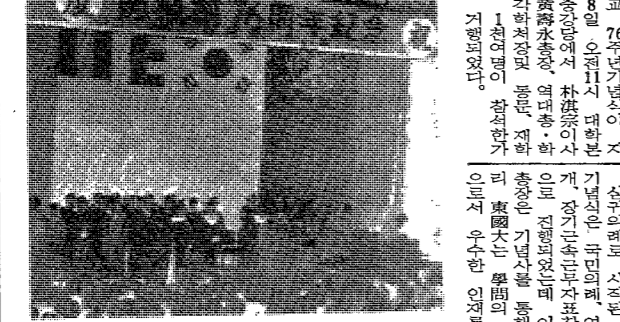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총장기 체육대회는 8일 장충체육관에서 결승전을 치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여개 고교가 참가했으며, 장충체육관과 신광여고의 열띤 경쟁이 돋보였다. 장충체육관은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으며, 신광여고는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체육흥미를 고취시키고, 건강한 체질을 기르는데 크게 공헌했다.

최우수선수에게 金裕宅(李在媛) 賞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에게 금裕宅(李在媛) 상을 수여했다. 최우수선수는 장충체육관 소속의 김민준 선수로, 뛰어난 경기력과 팀을 이끈 공로로 수상했다. 금裕宅(李在媛) 상은 학교의 전통을 이어온 선배 선수의 이름을 딴 것으로, 최우수선수에 수여된다.

76주년 開校 기념식 盛了

研究精進하는 勉學風土 조성 다짐



◇지난 8日 開校76주년 기념식에서 演說하는 李在媛(李在媛) 氏의 演說의 一部를 보여준다.

동국대학교는 11월 8일 개교 7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李在媛(李在媛) 氏가 勉學風土 조성 다짐을 주제로 연설했다. 李氏는 "동국대학교는 76년간의 역사를 통해 '연구精進하는 勉學風土'를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李氏의 연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

개교기념 禪思想講演會

7日 佛學院에서 禪思想講演會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佛學院에서 개최되었으며, 禪思想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에 대해 다뤘다. 강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제20회 全國男女高校生 文學콩쿠르

高校文學의 饗宴

本校에서는 開校 76周年을 기념하여 全國의 男女高校生을 대상으로 文學콩쿠르를 개최한다. 이번 콩쿠르는 1982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11월 15일까지 심사된다. 수상작은 1982년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 ◎作品募集種目
 - (A) 시조 3~5篇 이내
 - (B) 시 3~5篇 이내
 - (C) 소설 50字 이내
 - (D) 단편 15字 이내
- ◎審査 節次: 本校生의 作品으로서 學校長이 推薦한 作品(推薦書同封하사기 바람)
- ◎施賞 種目
 - 1차 原稿審査에서 入選한 者는 個別通知하사 5월 29日 本校에서 發給한 「白日記」에서 總評 入賞者를 發給한다.
 - ▲時評部: 1등 1名(賞金 10,000원), 2등 2名(賞金 5,000원), 3등 3名(賞金 3,000원)
 - ▲小説部: 1등 1名(賞金 10,000원), 2등 2名(賞金 5,000원), 3등 3名(賞金 3,000원)
 - ▲短篇部: 1등 1名(賞金 10,000원), 2등 2名(賞金 5,000원), 3등 3名(賞金 3,000원)
- ※ 1차 原稿審査에 합격한 者에 對하여 入賞狀과 副賞을 發給한다. 또한 2차부터 3차까지 發給한 賞金도 本校생 文學系列 入賞에 功勞를 立한 者에 對하여 發給할 수 있다.
- ◎作品提出期間: 81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函자로 提出한다. 1982년 1월 15일까지

東大新聞社

東國祝典 개막

전야제를 필두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동국대 축제 개막식은 전야제를 시작으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에는 다양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 기간에는 학교 곳곳에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 강연회

10日 養在館에서 演說자로 李在媛(李在媛) 氏가 主講한다. 이번 이데올로기 강연회는 10일 양재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연자는 李在媛(李在媛) 氏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과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교내 前期 「종합시험」

11月 29日 開始로 3과목씩 실시한다. 이번 교내 前期 종합시험은 11월 29일 시작되며, 3과목씩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다음 학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미소공룡전

11月 15日 開始로 10일간 展出한다. 이번 미소공룡전은 11월 15일 시작되며, 10일간 전시된다. 이번 전시에는 다양한 미소공룡의 화석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를 통해 미소공룡의 생김새와 생활 습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저력과 슬기는 重工業立國의 意志를 實現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민족의 저력과 슬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1600년경 네덜란드인 시몬스테인(Simon Stevin)이 바람을 이용한 4바퀴의 풍력차(風力車)를 제작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1770년 프랑스의 니콜라스 쿠노(Nicholas Cugnot)가 증기기관을 장착하여 엔진이 달린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쿠노가 발명한 자동차는 15분마다 보일러의 물을 채워야 하고, 속도는 3.2km/h로서 사람이 느릿느릿 걷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의 기반의 자동차는 1886년 독일의 고틀리브 다임러(Gottlieb Daimler)가 발명하였으며, 이후부터 자동차는 인류문명이 날을 가히 날아가는 기계로 각광받으면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는 1903년 수입된 「포드 T형」 승용차로서 고종황제의 왕실의 전용 차량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이 구체화 되었다. 이 때부터 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고수준 승용차인 포니를 개발, 74년 이탈리아 토리노자동차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후발 공업국 중에서 유일하게 고유 모델을 보유 한 나라로 부상시켰다. 7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자동차 공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형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는 생산차종의 확대와 함께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연생산능력 14만대인 현재의 생산라인이 84년까지 30만대 대연의 생산공장을 건설, 국제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굴지의 자동차 메이커로서 새 장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스틸린, 내외장, 성능, 안전도, 연비를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소형승용차를 신구 개발하여, 마이카 시대를 앞당기고 수출을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이 공장 건설이 끝난 현대자동차의 연생산능력은 44만대로 늘어나, 85년에는 승용차 32만대를 생산하여 11만대를 수출하게 된다. 포니를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 자동차 생산국으로 끌어 올렸듯이, 현대자동차는 30만대 공장 건설의 플랜속에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한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 내수확진을 통한 양산체제의 확립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광활한 세계시장을 당당히 석권하게 될 날이 앞당겨 실현될 것이다.

82년 개발된 5도어승용차 「포니 2」

現代

